

대구대학교 교수회 통신

제8대 제1호 | 2022년 3월

〈 차례 〉

1. 〈논단〉 차기 대학 본부를 어벤저스처럼
2. 교수회 활동 보고
3. 신임교원 명단
4. 신임교원 기고문
5. 퇴직교원 명단
6. 공지사항
7. 단과대학 평의원 명단

논단

“차기 대학 본부를 어벤져스처럼”

교수회 의장 양진오(문화예술학부)



우리 대학 교수, 직원, 학생 누구나 학교의 새 출발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필자 역시 그러하다. 그런데 그 새 출발이 쉽게 이뤄질 과제 같지는 않다. 대구·경북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의 장기화, 등록금 동결 등 우리 대학을 둘러싼 외적 여건이 참으로 만만치 않은 까닭이다.

외적 여건만 그런 게 아니다. 편제, 직제, 입학, 예산 등 내적 과제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쉽게 이뤄질 과제 같지 않다고 하여 학교의 새 출발을 포기할 일도 아니다. 총장 선거는 우리 학교 새 출발의 분기점일 수 있다. 아니, 총장선거를 새 출발의 분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총장선거 출마자들이 각별히 고민해야 하는 공동 과제가 있다. 바로 대학 경영을 주도하고 책임질 대학 본부 구성이다. 더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대목이다. 대학 본부가 선거 결과에 따라 승자독식의 방식으로 구성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승자는 대학 본부 행정을 독점하고 패자는 관망하는 방식으로 선거 결과가 고착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어벤져스』(Avengers)라는 영화 시리즈가 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가 만든 영화이다. 영화 『어벤져스』에는 지구 최강의 슈퍼 히어로들이 등장한다. 이 슈퍼 히어로들의 성격, 참 대단하다. 언제든 관계를 파국으로 끝낼 수 있는 별난 성격의 소유자들이다. 시리즈 중 하나인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Captain America: Civil War)는 슈퍼 히어로 각자의 신념이 초래한 관계의 파국을 그린 영화이다.

이 관계의 파국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국 원팀으로 다시 만나게 된 이유는 뭘까? 지구 공멸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 때문에 그렇다. 지구 공멸을 놓고 벌어진 슈퍼 히어로들의 고군분투를 그린 시리즈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Avengers Infinity War)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악당이 타노스이다. 타노스, 이 악당 놀랍다. 손가락을 툭 튕기면 모든 걸 끝낼 수 있다. 이 정도면 거의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급이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승자는 타노스이다. 타노스 앞에서 슈퍼 히어로들은 무기력과 절망, 공포를 반복한다.

그런데 이 시리즈는 타노스의 승리로 끝나지 않는다. 슈퍼 히어로들은 또 다른 시리즈인 『엔드게임』(Endgame)에서 승리한다. 『엔드게임』에서 슈퍼 히어로들은 진정한 슈퍼 히어로로 탄생한다. 그 관건은 초능력이 아니다. 그 관건은 자신의 신념과 성격을 뒤로 하고 협력하는 살신성인의 연대이다. 이들이 타노스를 이긴 이유는 초능력이 아니라는 말이다. 슈퍼 히어로들은 『엔드게임』에서 비로소 화해하고 죽어가며 연대하면서 타노스를 겨우 제압한다.

영화 이야기가 좀 길었다. 앞으로 구성될 대학 본부가 어벤져스가 되기를 기대한다. 학교의 외적 여건, 내부 과제가 타노스급이어서 그렇다. 학령인구 감소, 그 문제 우리가 풀 수 없다. 코로나19가 아닌 더 강한 재난이 학교의 문을 닫게 할 수 있다. 등록금은 계속 동결될 거다. 편제, 직제, 예산, 입학 등의 내부 과제도 꼬인 실타래 같다. 그러면 이 타노스급의 위기 앞에서 총장선거 출마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당선 그 이상의 선택을 고민해야 한다.

총장선거 출마자들은 슈퍼 히어로가 아니다. 슈퍼 히어로들은 자신을 다 내던져 연대하며 타노스를 제압할 수 있었다. 총장선거 출마자들은 대학 본부의 어벤져스화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너무 영화를 빌려 말한 거 같다. 총장선거 출마자들은 대학 구성원의 협력을 이끄는 통합적 대학 본부 구성을 공동 과제로 연구해야 한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

교수회 활동 보고 (2022년 1월~2월)

(1) 교수회 평의원회

- 1월 26일 대학총장결위에 따른 긴급평의원회
 - ▷ 각 단대별 교수들의 의견 수렴 필요
- 2월 10일 총장선출방식관련 현안논의
 - ▷ 각 단대별 교수 의견 수렴 결과 ①교수회 원포인트 선거방식안과 ②법인규정 개정 하의 선거방식안을 지지하는 비율이 팽팽한 상황
 - ▷ 전체 교수 대상의 투표를 통해 여론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교수회가 결정함
- 2월 25일 총장선출방식관련 교수회 입장 논의
 - ▷ 전체 교수 대상의 총장선출방식에 대한 투표 결과 안내(참여인원 150여명 중 교수회 원포인트 선거 찬성 60%)
 - ▷ 총장 선출의 시급성 및 교수회 원포인트 선거 진행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법인규정 개정 후 선거 실시로 방향 설정

(2) 교수회 정기회의 및 의장단 활동

- 1월 20일 : 교수회 성명서 : 총장선거로 신학기 새출발을!
- 1월 24일 : 총장직무대행과 면담 (1월 28일 알림톡#17 참조)
- 1월 27일 : 직원노조 집행부와 면담 (1월 28일 알림톡#17 참조)
- 2월 18일 : 평의원회 개최 결과 후속 논의
- 2월 26일 :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총장선출방식에 대한 교수회 입장 논의

신임교원 소개

◎ 2021년 3월 1일자 임용

성명	소속	초빙분야
김지연	정보통신대학 컴퓨터정보공학부	컴퓨터보안
문가영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유아교육학
유재현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기계설계
이호섭	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융합전자공학
정재우	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전기공학
홍유리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 2022년 3월 1일자 임용

성명	소속	초빙분야
김신영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
이미란	정보통신대학 컴퓨터정보공학부	가상현실/HCI
이승주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안성호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천문학
조성준	공과대학 신소재에너지시스템공학부	전기에너지변환

신임교원 기고문 ①

“내 학생이 생겼다는 것은 큰 기쁨”

문가영 / 유아교육과



2021년 1월 28일.

교수초빙 사이트를 수시로 들락거리며 합격자 발표가 나기만을 기다리던 그 날, 교수초빙 사이트에서 ‘최종합격자’라는 붉고 굵은 글씨를 확인하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반응하여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겨우 붙잡고 심호흡을 하며 차분하게 읽어내려간 화면에는 ‘2021-1학기 교원초빙 신규임용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작은 글씨가 적혀있었습니다. 대구대학교의 구성원이 되어 1년여를 지낸 지금, 작년의 그 순간을 떠올리니 다시 미소가 지어지며 그때의 기쁨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1년 전 대구대학교에 왔을 때 낯설고 설레던 연구실이라는 공간이 지금은 익숙함을 주는 것을 느끼면서 신임교원으로 지낸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대구대학교 유아교육과의 구성원이 되어 내 학교, 학과, 동료 교수님, 그리고 내 학생이 생겼다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우리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인정받는 유아교사로 성장하도록 잘 가르쳐야겠다는 포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기상담 외에도 수시로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들을 보며 교수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새삼 생각해보게 되었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학생을 위하고 학과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시는 교수님들과 함께하며 대구대학교 유아교육과의 구성원이 된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저 또한 학교와 학과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걷기도 하고, 학과 교수님, 학생들과 교내 숲길을 산책하며 넓은 캠퍼스의 학교가 주는 아름다

움에 심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켜보니 대구대학교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기뻐하기만 하고 또는 다짐만 하고, 해야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정신없는 적응기를 거친 2022년 올해는, 안정되고 차분한 마음으로 작년보다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신임교원으로 정신없는 적응기를 보내고 나니, 올해에는 입학자원 감소로 인해 대학이 겪게 된 위기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지만 그 답이 무엇인지는 쉬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자와 연구자로서 본분을 충실히 하여 학교와 학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즉 저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입장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관계를 맺고, 질적인 수업을 위해 성실히 강의를 준비하고, 전공 분야의 꾸준한 연구를 통해 역량을 함양하고, 학과와 학교 발전을 위한 교수님들과 협력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학교의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로서 교단에 설 때면 가르침 자체가 주는 만족감은 있었지만, 수업 외의 다른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위치로 인해 한계를 느끼곤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내 학교에서 내 학생을 가르치고 싶고, 내 학과와 학교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어 대구대학교와 대구대학교 유아교육과 그리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임교원 기고문 ②

“대구대학교에 대한 몇 가지 단상”

홍유리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대구대학교와의 인연은 2017년 1월 2일에 맺게 되었습니다. 버스와 KTX, 무궁화호, 그리고 다시 버스로 이어진 초행길의 고단함은 문천지의 반짝거림에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이날 이후 한 학기 공백 없이 강의를 다녀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게 강하게 남아있던 것은 끊임없는 노조 문자, 교수님들과의 티타임, 그리고 한 학생의 한숨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장소의 여러 학교로 시간 강의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노조측의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대구대학교 노조는 상당한 강성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노조가 활발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대구대학교의 시선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급여 통장의 숫자에 매료되어 있던 눈이 시간이 지나면서 캠퍼스 곳곳 사회적 약자들의 모습으로 옮겨갔습니다.

시간 강의를 다니면 보통 학과장 연구실에서 간단히 인사를 나누거나 그나마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대학교에 첫 강의를 왔을 때의 경우는 사뭇 달랐습니다. 교수님들 대부분이 참석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유쾌한 티타임을 보냈습니다. 막역하게 주고받던 일상 대화는 이내 곧 학교 이야기로 번져갔습니다. 그 이야기들의 결론은 모두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을 위한 수많은 고민과 애정어린 대화들. 당연한 것이라 할 수도 있지만 당연하지 않은 사례를 더 많이 경험했기에 이날, 그리고 이후의 수많은 티타임들이 제게는 기억에 남습니다.

방향 감각이 좋지 않은 저는 캠퍼스 안에서 길을 잃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한 학생을

붙잡고 길을 물었고 그 학생은 나름 상세히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눈만 꿈쩍거리는데 표정을 보자 조그맣게 한숨을 쉬더니 같이 가자며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시간도 남고 힘도 들어 터벅터벅 걷는 제 보폭에 맞춰 그 학생도 천천히 캠퍼스를 가로질렀습니다. 제가 이제 길을 알겠다 하자 학생은 꾸벅 인사를 하고 걸어온 정반대 방향으로 전속력을 다해 뛰어갔습니다.

시스템의 언저리에 있을 때와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분명 다를 것이라고 많은 선배님들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못 보던 것들이 지금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좋은 쪽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그 전에 갖고 있던 세 가지 인상은 쉽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들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 학교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좋은 뜻이 좋은 길을 내어 줄 거라는 믿음을 여전하게 합니다.

신임교원 기고문 ③

“인생에 있어 큰 전환기”

유재현 / 기계공학부



1.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코로나-19로 상당히 어수선하던 2021년 3월 대구대학교 기계공학부에 부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마비되고 비일상적인 것이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던 시기가 제 인생에 있어 큰 전환기를 마련해 준 셈입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지금, 여기에 있게 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신임 교수님들께서 그러하듯이 저에게 있어 첫 학기는 학교 일원이 되기 위한 과정과 시스템에 적응하느라 무척 바빴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임용 전 연구소에서 연구만 주로 하던 터라 수업에 있어 큰 책임감 및 부담감을 느껴 열 일 제쳐 두고 밤늦게까지 강의준비 및 강의에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강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였지만, 이런 노력으로 인하여 학생들에게도 비교적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열심히 한 해를 보낸 것 같은데 지금은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한 번에 많은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 수업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 후회가 남습니다.

2. 학생들과의 만남

대구대학교 부임 전 제가 생각했던 대학생들은 다 큰 성인의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해를 보내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은 학생들이 너무 귀엽고 어리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잠을 못 이겨 수업 도중 꾸벅꾸벅 조는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었습니다. 감기는 눈을 억지로 뜨려고 노력하고 떨거지는 고개를 들려고

안간힘을 쓰는 학생들이 귀여워 수업 도중 웃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부임 후 학생들과 면담을 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지만 모두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고 각자의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교수님들께서는 좋은 이야기, 그리고 경험에서 우리나라는 조언도 해주셨겠지만, 저는 아직 너무 초보 교수라 학생들의 말에 공감 정도 밖에 해줄 수 없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3. 교수로서 나아가야 할 길

제가 학생일 때 생각하였던 훌륭한 교수님의 상은 연구 성과가 좋은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좋은 연구자가 되는 것과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서툴지만 먼저 저와 같은 길을 걸어오신 선배 교수님들께 많이 배우고 본받아 좋은 교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교원 안내

© 2021년 8월 31일자

성명	소속	최초 임용일
정상국	행정대학 부동산·지적학과	1999년 3월
김희석	경상대학 경영학과	1985년 9월
윤태석	경상대학 경영학과	1988년 3월
현성용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1985년 3월
박신	과학생명융합대학 생명환경학부	1988년 3월
서계홍	과학생명융합대학 생명과학과	1986년 3월
조문수	과학생명융합대학 생명환경학부	1988년 9월
김경희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1995년 3월
이수철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1994년 9월
이해균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2000년 3월
황경열	재활과학대학 재활심리학과	1990년 3월

© 2022년 2월 28일자

성명	소속	최초 임용일
강희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1995년 3월
조순제	행정대학 도시행정학과	1994년 9월
김선호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1993년 3월
박태영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1996년 3월
이영득	과학생명융합대학 생명환경학부	1991년 9월
임광희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1996년 3월
우홍채	정보통신대학 ICT융합학부	1992년 3월
서경희	사범대학 유아특수교육과	1999년 3월
한진우	성산교양대학(S-LAC) 자유전공학부	1992년 3월
김성애	사범대학 유아특수교육과	2001년 3월
권혁철	재활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1991년 9월

공지사항

(1) 각종 위원회 교수회 추천 위원

위원회	교수회 추천 위원
고충처리위원회	이기은 (경영대학 경영학부/교수회 간사)
교무위원회	양진오 (인문대학 문화예술학부/교수회 의장)
교원소속전환심의위원회	차정호 (사범대학 화학교육과/교수회 부의장)
교원인사위원회	차정호 (사범대학 화학교육과/교수회 부의장)
기획위원회	황보각 (재활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교수회 간사)
예산위원회	이가연 (경영대학 경영학부/교수회 부의장)
편제조정위원회	정유정 (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공학부)
학과역량평가연구위원회	오진희 (조형예술대학 융합예술학부/교수회 간사)

(2) 교수회에서는 『(가칭)대학발전정책연구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교수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단과대학 평의원

(2022년 3월 14일 현재)

단과대학	회원수	평의원	
인문대	29	김봉정(글로벌언어문화학부)	민성기(글로벌언어문화학부)
법·행정대	33	고상현(법학부)	김지영(경찰학부)
경영대	43	김영주(경영학부) 정준희(경영학부)	김현정(호텔관광경영학부)
사회과학대	46	이소영(국제관계학과) 정소희(청소년상담복지학과)	노성향(아동가정복지학과)
과학생명융합대	34	황근보(빅데이터학과)	사공동훈(생명환경학부)
공과대	54	황인조(환경기술공학과) 이우성(조경학과)	이미령(식품영양학과)
정보통신대	33	장중혁(컴퓨터정보공학부)	이강현(전자전기공학부)
조형예술대	27	최영림(패션디자인학과)	박진우(산업디자인학과)
사범대	70	김익표(수학교육과) 박종근(지구과학교육과)	권순우(특수교육과) 임석희(지리교육과)
재활과학대	27	김환(작업치료학과)	김명권(물리치료학과)
성산교양대	2	박영식(자유전공학부)	
간호대학	11	미정	
독립학부	12	여준호(AI학부)	

『대구대학교 교수회 통신』 제8대 제1호

발행인 : 양진오(의장)

편집인 : 차정호(부의장), 이가연(부의장)

교수회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교수학습지원관 1층 1101호

사무실 053.850.5753 팩스 053.850.5754

홈페이지 <https://prof.daegu.ac.kr>